

직장인을 위한 '시간 테크'

레이 조지프 저 「24時間 活用法」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아직 생소한 용어지만 美·日 등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개념인 것 같다. 「24시간 활용법」(삼성출판사)은 이 타임 매니지먼트 서적 중 고전으로 자리를 굳힌 책으로 일본에서 번역되어 무려 6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이 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서둘지 말고 쉬지 말라'의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소위 '財 테크'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지만, 하루에 단 24시간 빈 부귀천 구별없이 주어지는 신의 선물인 시간에 관해서는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르치는 '시간 테크'의 습득과 활용이야말로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임을 알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책으로는 사실 이 책보다 널리 알려진 「생의善用」(Use of Life)이 있다. 「생의善用」은 버틀랜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Conquest of Happiness)이나 서머셋 모옴의 「서밍업」(Summing Up)과 함께 그 문체의 명쾌함과 깊이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초년기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 그러나 「24시간 활용법」은 「생의善用」에 비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사업가에게 오히려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무요령, 일의 정리방법, 그리고 주부의 시간활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중요한 일과 하찮은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는 것, 그리고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서구적 합리주의의 한 단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선은 배우고, 다음엔 우리의 문화와 조화시켜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몇 십년 전에 씌어진 책이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기계'편에는 오늘날의 시대감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책을 읽다 보면 이처럼 바쁘게 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통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독자에게는 이 책과 함께 반드시 「생의善用」을 함께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한보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박사과정 · 국민윤리전공

분단으로 왜곡된 역사와 삶

조정래 작 「태백산맥」

한반도의 중심에서 동해를 따라 남단으로 뻗어나간 산줄기. 북만주를 받쳐주고 있는 낭림산맥과 함께 한반도 남쪽을 든든히 이고 앉은 이 산줄기는 한민족의 한과 희망을 묵묵히 지켜보아왔다.

일제의 식민지로 36년간을 억압과 설움 속에서 보내고 맞은 해방은 한반도에 참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가꾸리라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한반도 남쪽에서 펼쳐진 상황은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싸고 대립하는 국내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체제의 한 부분으로 이끌려가는 미·소 강대국의 이익논리가 맞물린 혼란의 계속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분단사의 배짜기'를 하고자 하는 작가 조정래가 자신의 대하소설 제목으로 「태백산맥」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꽤나 함축적이다.

「태백산맥」은 한반도의 아랫녘에서 펼쳐지는 혼돈과 격동의 시기를 '소수인의 치장을 위한 비단'이 아니라 '다수인의 삶을 감싸는 삼베나 광목을 짜고자'하는 작가의식의 한 표현이다.

한 가족의 구성원인 염상진, 염상구 형제가 이데올로기를 달리함으로써 서로 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현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고민하는 계엄사령관 심재모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지역 유지들과의 갈등으로 용공행위로 체포되는 현실.

농지개혁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지주들의 이익만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작 농사를 직접 짓는 소작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뒤편이 벌거벗은 놈"이라는 말을

다시 듣는 현실.

산으로 간 남편의 수난과 그 아내들이 겪는 여자로서의 수난들. 설날이 되었지만 썩떡 뽕일 설떡을 손에 쥐어야 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술찌꺼기를 먹고 취한 아이들.

이들의 모습은 '민족분단의 가속기'가 빚어내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역사의 물줄기'의 한 갈래이다.

그동안 좀처럼 소설을 통해서 읽어낼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솔직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태백산맥」은 "바람직한 역사가 정의로운 삶들의 연이어야 하고 소설은 그것을 가로막는 왜곡과 모순을 헤쳐내 인식하는 공감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또한 "그래, 술! 사상이고 이즘이고 다 때려치고 염전배하고 우리 다같이 만나 옛날처럼 술이나 코가 비틀어지게 마셨으면 좋겠구만"하던 김범우의 독백으로 책을 읽고 난 독자에게 긴 여운을 남겨준다.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한 사람의 독자로 기쁜 일이었다.

전은숙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656-947 · 회사원

韓國語 語源研究史

姜惠圭 著

- 一. 序 論
- 二. 表記文字 字義에 對인 語源의 意識
- 三. 說話의 語源說(三國時代)
- 四. 漢字字義에 의한 語源說(高麗~朝鮮前期)
- 五. 初期의 比較言語學的 語源說
(朝鮮後期: 實學時代~甲午更張 以前)
- 六. 言語의 分析의 語源研究
(甲午更張 以後~1940年代)
- 七. 言語理論에 의한 語源研究(1940年代 以後)
- 八. 外國人의 語源研究
- 九. 結 論

集文堂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120 서울 · 서대문구 미군동 142 번지

3131-319

온라인컴퓨터사식 조판시스템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 컴퓨터사진식자 · 수동사진식자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

자비출판

도와드립니다

- * 원고집필 대행
- * 편집
 - 세련된 에디토리얼 디자인
 - 책임교정
- * 제작 일체

266-7682, 7683

'편집전문인 모임'의
이가령·이희주에게 문의하십시오.